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무용) 시범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2. 26(금) 16:3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중연습실
  - 2차 심의 : 2016. 3. 21(월) 10:00, 대학로예술극장 6층 스튜디오 하늘

201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무용분야는 1차 서류전형에는 총 79건이 접수되었다. 올해 시범공연지원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는 지원의 적격성에 중점을 두고 최종 지원의 약 1.5배수 정도를 선정했는데,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그리고 단체의 역량에 배점을 두고 심의하였다. 역량이 있는 듯한 안무자도 전반적으로 창작 아이디어가 진부하고 답습적이며, 참신한 발상이 아쉬웠다. 현대사회의 존재론적 갈등과 소외, 삶과 죽음, 무용수의 몸, 일상의 관조, 자연에 대한 경외 등 주제가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나열되어 있거나 기존 소설, 철학, 음악의 내용을 여과 없이 단순하게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맹목적인 전통의 해체, 재구성이나 막연한 융합의 시도는 매우 경계해야 할 자세이며 창작의 진지한 고민을 더 바라본다. 몇몇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며, 힘없는 자들의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다양한 작품들의 참신성을 기대해보며 1차 심의에서 대극장 8건, 소극장 15건을 선정했다.

2차 PT심사는 작품의 예술성과 발전 가능성, 충실성과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심사에 참여한 단체는 팀당 10분간 예정하는 작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5분간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가 진행됐다. 대체로 많은 지원자가 협업을 통해 여러 장르와의 융합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기대되는 작품도 많은 한편,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로 인해 대중과의 소통에서 단절을 느낄 수 있는 소지의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작품의 주제가 일반적이고, 막연한 피상적인 나열이 아쉬기도 했는데, 젊은 안무가의 참신한 발상과 고민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보다 새로운 주제 선택과 전개가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접근이 무용예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지원신청에는 한국무용과 발레 장르의 지원이 현대무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컨템퍼러리의 개념 혹은 동시대의 무용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발레, 한국무용의 장르 혹은 그 개념에 국한되어 활발한 도전과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창작발레와 창작한국무용 작품들이 더 많은 지원과 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1, 2차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시범공연지원 대상으로 대극장 5건, 소극장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단체와 안무가의 역량, 작품의 예술성과 발전 가능성, 수행 능력 등 창작 산실 지원사업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했으며, 장르별 안배도 어느 정도 고려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시범공연지원 단계는 모든 작품이 동일한 제작 조건하에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극장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했다. 총 3단계 중 시범공연단계에 배정된 총 예산은 2억 원이었으며, 시범공연에 선정된 16개 작품에 총 1억3천8백만원을 지원 결정했다. 시범공연지원의 잔여 예산은 우수작품 제작지원 단계로 이월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